

커피 열풍에 녹차가 죽는다

전남지역 재배 급감·문닫는 다원 속출 보성 50농가 국제유기인증 활로 모색

“더 이상 다원(茶園) 경영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녹차 소비량이 연간 300g만 돼도 국내 생산분이 부족할텐데..”

지난 1998년 귀농한 주모(51·보성군 회천면)씨는 물려받은 1만평의 다원과 임대해 조성한 1만평 등 모두 2만여평에서 녹차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4년전인 2007년부터 2000여평에서 녹차나무를 뽑아내 규모를 줄였고, 산비탈에 위치한 녹차밭 1만여평은 아예 묵고 있는 상태다.

최근 커피산업의 호황에 밀려 3~4년 전부터 폐원(廢園)하는 녹차농가들이 증가하는 등 녹차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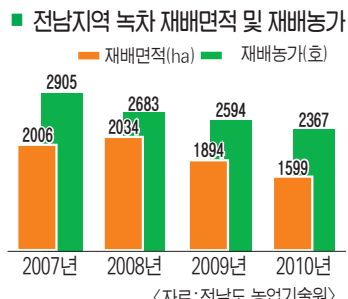
◇줄어드는 국내 녹차밭=19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보성군에 따르면 국내 녹차농가들이 잇따라 폐원하며 녹차 재배면적 역시 급속하

게 줄어들고 있다.

전남지역 재배면적은 지난 2007년 2006ha(2905 농가)였던 것이 2008년 2034ha(2683 농가)로 늘었다가 ▲2009년 1894ha(2594 농가) ▲2010년 1599ha(2367 농가)로 급감했다.

녹차주산지인 보성군 역시 지난 2008년 1097 농가, 1164.1ha였으나 2009~2010년 1097 농가, 1097.1ha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006 농가 1063.7ha로 줄어들었다.

이는 커피와 녹차 연간 1인당 소비량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서식품의 국내 커피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마신 커피는 총 232억6900만 잔에 달한다. 이를 커피 소비자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 4464만7000명(통계청 자료)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해 1인당 연간 521.2잔, 하루 평균 1.4잔의 커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녹차소비량은 1991년 12.1g에서 2000년 38.1g, 2003년 39.8g으로 늘었고 현재는 70~80g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2000년 국가별 1인당 차 소비량은 아일랜드 2690g, 영국 2330g, 일본 1080g, 중국은 360g에 달했다.

◇유기인증·발효차 개발로 활로 모색=이러한 상황에서도 녹차생산 농가들은 미국(USDA)과 일본(JAS)·유럽(EU) 등 국제 유기인증과 후(後) 발효차 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현재 보성지역 50농가(157ha)와 가공업체 4개소가 국제 유기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향후 녹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는 ▲산비탈이 아닌 평지에 다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도입하고 ▲가내수공업 형태의 단순가공 방식을 탈피해 대형 자동 가공기계를 도입하며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고가 제품 외에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도 자체 육성한 신품종 ‘참목’을 올해 5만본가량 보급하고 새순을 잘라 정식할 수 있도록 모수원(母樹園)을 조성하는 등 신품종 녹차나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 박형우 녹차산업과장은 “2000년초 녹차밭이 증가추세를 보이다 차소비가 감소하면서 2007년을 고비로 정체상태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방규필 소장은 “녹차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며 “‘녹차라떼’와 같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수요창출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최강희호 영암서 첫 소집훈련 오는 29일 쿠웨이트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을 앞둔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19일 오후 영암 현대 사계절 잔디축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첫 소집훈련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영암에서 훈련하고 24일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25일 오후 2시)을 위해 전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촌 선거구 폐지 논의 중단하라”

담양·곡성·구례, 남해·하동 지역민 연대 지역구 존치 촉구

정권권이 4·11 총선을 앞두고 일부 농촌 지역구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이 연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출마 예정자 및 인근 선거구 예비후보들도 선거구 존치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가뜰이나 지방정부 살림도 빠듯해지는 등 점점 피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대표’까지 사라질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형식 담양군수와 담양 소속 도의원, 군의원, 15개 농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권권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지키기 운동본부와 경남 남해·하동군 주민들은 지난 17일 ‘농어촌 지방선거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상경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상한선이 넘지 않았는데도 분구되어 있는 도시지역 선거구는 놔두고, 2~4개의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통합 내지 공중분해시키려는 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의 표본”이라며 선거구 존치를 요구했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지키기 운동본부 송진후 본부장은 “만약 선거구를 폐지할 경우 지역

구민들과 선거권 반납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낙연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최근 “농어촌을 더욱 황폐화하고 국가 장래를 망칠게 할 것”이라며 “폐지 움직임을 중지해야 한다”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국회 정계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국회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통합합방점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형 함평·영광 예비후보도 19일 선거구 존치를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호남 컷-오프 결과 29일 발표 내달 10~15일 국민경선

컷-오프(후보 압축)를 통한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대진표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또한,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민주통합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은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유은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컷-오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9일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회는 또한, 국민 경선 시기와 관련, “다음달 5일부터 국민 경선이

시작되고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은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국민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며 “15일까지 후보 선정을 마친다는 것이 공심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의 컷-오프와 관련, 우 위원회는 “어떠한 특정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 일괄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컷-오프시킬 계획은 없다”며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컷-오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22~23일 광주·전남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

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 되는 대로 서류심사 접수 등을 합산,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1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가운데 최소한 3~4명은 컷-오프에서 탈락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컷-오프가 마무리되면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 후보들은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접수한 국민 경선 선거인단 확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컷-오프에서 탈락한 일부 예

비 후보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 등으로 지역 총선 구도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컷-오프를 통한 국민 경선 대진표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하지만 컷-오프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탈락 예비 후보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단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1차 공천자 명단’ 확정을 2~3일 늦추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신대학교
학부정시 추가모집
2월24일(금)~27일(월)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ANIL EXPRESS

www.hanilexpress.co.kr

제주↔완도 한일카훼리 취항
33주년 기념 이벤트

렛츠고

3.3.3!



Event 1. 3.3.3. Early bird 할인
3월 탑승 블루나래호, 33% 할인!
기 간: 02년 1월 ~ 02년 29일
대 상: 3월 탑승 블루나래호 예매 고객
내 용: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타미널 이용료 별도)

Event 2. 다자녀 가정을 응원합니다!
3자녀 이상 가족고객, 33% 할인!
기 간: 2012년 중
대 상: 3자녀 이상 동반 가족 고객
내 용: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아계/추석 특송기간 제외, 타미널 이용료 별도)



이벤트 상세 내용은 한일고속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전화 1688-2100